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지역 매력 알린다”

광주 동구-대구관광재단 ‘달빛시티투어’ 관광교류
충장축제 등 5개 코스...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앞으로 다른 도시 시민들도 우리 동구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동구와 대구 관광재단이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찬 첫걸음을 내딛어 주목을 끌고 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초 대구관광재단과 양 도시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를 본격 추진한다.

대구출발 달빛시티투어는 업무협약 이후 처음 시행하는 관광교류 사업이다. 오는 12월11일까지 매주 토요일 14회에 걸쳐 정기적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달빛시티투어 정기코스는 ▲동구예술코스 ▲동구힐링코스 ▲동구역사코스 ▲동구젊음코스

▲충장축제코스로 운영된다.

먼저 동구예술코스와 동구역사코스는 ▲광주 폴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일빌딩 245 ▲드림커퍼체험 등 주요관광지를 비롯해 5·18관련 사적지를 탐방하게 된다.

동구힐링코스와 동구젊음코스는 ▲몽명동 카페거리 드림커퍼 체험 ▲무등산 편백 숲 산책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리프트가 체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충장축제(11월3일-7일)가 개최되는 11월에는 ‘힐링 YES 충장축제’를 연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동구를 알릴 예정이다.

투어는 대구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진행되며, 대구 중구 소재 삼성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약제로 운영한다.

또한 안전한 투어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단계



대구관광재단이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광주 동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별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참가인원을 소규모로 모집한다.

백신접종 우선예약, 마스크 착용 의무, 발열검사, 손소독제 구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택 구청장은 “동구-대구 간 관광교류 협약의 첫걸음으로 추진하는 달빛시티투어를 통해 동구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대구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국제라이온스 355-B1지구회장단 후원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2020-2021 회장단은 지난 1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인재양성 및 그룹홈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광민 회장단 대표회장과 라이온스클럽 회장단을 비롯, 그룹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양성 후원금과 그룹홈 환경개선 및 학습비 등 1천200여만원이 전달됐다.

회장단은 이와는 별도로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프로젝트 정기후원’ 등에도 적극 참여기로 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관계자는 “학업과 예술 체육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재능 발휘가 부족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담양군, 고혈압·당뇨 바로알기 교실 호응

담양군이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당뇨 진단자·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혈압·당뇨 바로알기 교실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10월21일까지 장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수북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고혈압·당뇨 바로알기 교실은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전문 인력을 초빙해 ‘고혈압, 당뇨병의 원인, 증상, 관리법 교육’을 주제로 질환·합병

증 관리 교육,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 운동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보건소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해 치매 선별 검사 및 인지 기능 훈련, B·C형 간염 검사,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무료 쿠폰 등이 제공된다.

이경화 방문보건담당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을 배워 자가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추석 명절 나눔활동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광주 전남지역 8개 사회복지기관과 독거노인·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식품꾸러미와 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7일까지 ‘추석맞이 나눔활동주간’을 운영하고, 순천·여수·광주·목포 8개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맞이 농산물 전달 및 은누리상품권을 기부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본부사회복지회는 지난 13일 조곡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철도연변에 도움이 필요한 30가구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지원과 식품 및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하고, 가구별 방역소독활동을 시행했다.

장영철 광주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도움이 손길이 줄어든 소외계층에게 금년 급식지원과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철도 연변 주변 이웃에게 꼭 필요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동수기자



북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3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일곡한솔전문요양원과 무등노숙인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시설 입구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표범식 의장은 “오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요양원 및 시설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추석은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동강대 간호학과 RCY, 코로나 극복 헌혈 캠페인

동강대 간호학과(학과장 정은서) RCY(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 동아리는 14일 교내 본관과 인문사회관 등 2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동강대 간호학과 RCY(회장 선유림) 학생들은 솔선수범해 헌혈에 참여했고 학교 교직원과 선·후배들의 동참을 위해 적극 홍보했다. /김동수기자

동강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차례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연말에는 헌혈증을 기부해 따뜻한 이웃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RCY를 지도하는 정인주 교수는 “COVID-19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며 “동강대 학생, 교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정서진 KBC 대표이사 회장 취임



KBC는 지난 13일 열린 주주 총회와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정서진 아시아신탁 부회장을 KBC 신입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했다.

신임 정서진 대표이사 회장은 전도 출신으로 목포MBC 기자를 시작으로 세계일보 경제 부장, 논설위원, 경영지원실장,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인 출신이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것은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KBC는 이번 임시주총과 이사회에서 유영현 신입 부사장도 선임했다.

유 부사장은 KBC 서울본부와 서울 광역방송 센터를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KBC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광천동 신사옥 4층 대강당에서 정서진 회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영암 삼호지구대, 무화과 절도예방 홍보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가 무화과 수확철 절도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절도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삼호지구대는 무화과 재배 밭 취락지에 대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이장단·주민 상대로 절도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삼호 자율방범대와 민·경이 협력해 매주 2회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준 삼호지구대장은 “삼호지역은 전국 무화과 재배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지역으로 매년 수확기 무화과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농민들이 겹겹히 가꾼 농산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순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서해해경청 ‘서각동호회’ 작품전시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각동호회가 회원 작품을 청사 내에 전시하며 직원 간 소통과 공감대 있는 공직사회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동호회는 지난 10일부터 회원 10여명이 1년 동안 점심시간과 휴일 등 여가시간을 활용해 제작한 20여개 작품을 본관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다.

서각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백하은 경감은 “서각은 조상들이 예로부터 행해온 취미활동이자 전통예술 활동”이라며 “서각활동을 한 이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많이 평안해졌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경찰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간담회

영광경찰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대책’과 관련 군청 등 유관기관과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생활지원사는 약 3천명의 독거노인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피해사례 공유 중심의 간담회가 어르신 대상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현 영광경찰서장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독거노인들과 접촉하는 생활지원사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영광 내 노인학대·성폭력 등 어르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부음

●이재관씨 별세, 이창진(KIA 타이거즈)씨 부친상=발인 15일(수) 오전 9시 경북 안동시 용상안동병원(경북 안동시 양실로 11, 수상동) 장례식장 특실 (054-840-1004).